

제 1 교시

국어 영역

[고전 소설]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니리)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야. ①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겨  
 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명을 내리노니 별주부 가가 막혀,  
 (중머리)  
 별주부가 울며 여쭙되,  
 “토끼란 놈이 본시 간사하야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며  
 는 조목금수(鳥木禽獸)라도 빈정거릴 터이요 맹획(孟獲)을 칠종  
 칠금(七縱七擒)하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  
 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九族)을 멸  
 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따 보시오.”

토끼가 가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몹쓸 놈야. 왕명이 지  
 중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네가 못 들었느냐.  
 하걸(夏桀) 학정으로 용봉\*을 살해코 미구(未久)에 망국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

[A] 으런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  
 의 나라서 원귀 되고 너의 용왕 백 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낱한시에 모두 다 몰  
 살시키리라. 아나 옛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보아라.”

(아니리)

“왜 이리 잔말이 심한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가 하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 경개  
 가 장히 좋던가 보더라.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토끼는 육지에 당도하여 별주부를 따돌  
 리고 도망치지만 독수리에게 잡히는 신세가 된다.

(나) (중머리)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나 죽기는  
 싫지 않으나 수로 천 리 먼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 온 것을 무  
 주공산(無主空山)에 던져 두고 임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아니  
 썩소이까.”

(아니리)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엘 들어갔었지  
 요.”

“그래서.”

“수궁엘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즙치’를 하나 주십니다.”

“아니 무엇, ‘의사즙치’라는 것이 무엇이나.”

“글쎄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꼭 퍼 놓고 보면 구멍이 한  
 두서너섯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구멍을 딱 쳐서 ‘씩은 도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고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  
 을 툭 치며 ‘그 병아리 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가 일천  
 오백 마리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나오는 그런 보물을 저기 저 무주공산에다가 던져 두고 죽게  
 되니 그 아니 딱한 일이오.”

“너 이놈 토끼야.”

“네.”

“네 목숨을 살려 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 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럼 그것이 어데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소주병 들듯 탁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여기나.”

“네.”

바위 옆에다 턱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해 못 살겠다. 빨리 ‘의사즙치’ 좀 내오너라.”

“장군님, 내 뒷발을 잡고 놓아 달라는 대로 좀 놔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어 올 테니.”

토끼는 피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틈에다 쑥 허니 넣고,

“장군님, 조금만 놔 주시오. 아, 당을 만합니다. 조금만 더 조  
 금 조금 조금.”

뒷발을 탁 차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 장을 내겼다.

“세월이 여류허여…….”

“너 이놈 토끼야. 아, 내 시장해 죽겠는데 무엇이 그리 환가  
 해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B] “너 이놈 독술아.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 어  
 서 날아가거라.”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라니.”

“내가 늘그막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서 손주나 봐 주고 지나갈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왔으니 ‘의사춤치’라 하는 것이다.”  
 -작자 미상, ‘수궁가’-

\* 칠종칠금 :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 용봉 : 중국 하나라의 신하로, 걸왕에게 잔언하다 죽임을 당함.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학년도 6월 (고전 소설) - 59%]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
- ②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③ 창(唱)과 아니리가 교차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 ④ 의도적으로 고사(故事)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낳는다.
- ⑤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공이 물러 나오자 위공과 정렬 부인이 다시 일어나 칭찬하기를,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며 슬픈 감회를 금치 못하거늘 여공이 더욱 감사하며 공손히 응답하더라. ㉠ 평국과 보국이 또한 엎드려 먼 길에 평안히 행차하심을 치하하더라. 위공과 정렬 부인이며 기주후와 공렬부인과 춘랑도 또한 자리에 참례하고 양윤이 또한 마음에 기꺼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삼일을 즐기니라.

이때 친자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평국과 보국을 한 궁궐 안에 살게 하리라.”  
 하시고, 종남산 아래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새, 천여 칸을 불일성지(不日成之)로 지으니, 그 장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천 명과 수성군 백 명씩 내려 주시고 또 채단과 보화를 수천 바리를 상으로 내려 주시니, 평국과 보국이 황을 축수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그 궁궐 안 넓이가 십 리가 남은지라 위와의 거동이 친자나 다름이 없더라.

이때 평국이 전장에 다녀온 후로 자연 몸이 곤하여 ㉡ 병이 침중하니 집안이 경동하여 주야 약으로 치료하니, 친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사 명의를 급히 보내어,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위중하면 짐이 친히 가 보리라.”  
 하시고 어의(御醫)를 명하사 보내시니, 어의 황명을 받자와 평국의 침소에 와 병세를 진맥하니 병세 위중하지 아니한지라. 속히 약을 가르쳐 쓰라 하고 돌아와 친자에게 사실을 아뢰더라.

어의 다녀와 아뢰기를,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 하옵고 왔사오나 또한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하더라. 친자 놀라 묻기를,  
 “무슨 연고가 있더냐.”  
 어의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A]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  
 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기를,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리오.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桃花色)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 혹 미심하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하시고 자주 문병하시니라.

이때 평국이 병세 점점 나으매 생각하되,  
 ‘어의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탄로날지라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  
 하고, 즉시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고 ㉢ 부모 앞에 뵈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중형하거늘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종락 줄거리) 이후 홍계월(평국)은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군영 및 집안에서의 사건 등으로 남편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과 떨어져 홀로 지내게 된다.

각설, 이때 남관장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천자 즉시 뜯어 열어 보시니 하였되,

‘오왕(吳王)과 초왕(楚王)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자 하옵나이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북지 십여 성을 항복 받고 형주 자사 완태를 베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히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하였거늘, 천자 보시고 크게 곤란하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되 우승상 명연태 아뢰기를,

“이 도적을 좌승상 평국을 보내어 방비하을 것이니 급히 영을 내려 부르옵소서.”

천자 들으시고 한참 뒤에,

“평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러 국사를 의논하였거니와 ㉠ 지금은 규중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 들어 전장에 보내리오.”

하시되 신하들이 아뢰기를,

“평국이 지금 규중에 처하오나 이름이 조야에 있삼고 또한 작록이 영구하오니 어찌 혐의하오리오.”

하거늘, 천자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영으로 부르시니라.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관이 나와 천자가 부르는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어전에 엎드리니 천자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 경이 규중에 처한 까닭에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헤아릴 수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초 양국이 반하여 호주 북지를 항복 받고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마땅히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하시되 평국이 엎드려 아뢰기를,

“신첩이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웁고 공후 작록을 받자와 영화로 지내옵기 황공하온데 죄를 사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옵시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갚을까 하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 작자 미상, 「홍계월전」 -

\* 불일성지: 며칠 안 되어 일이 이루어짐.

\* 장계: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일이나 문서.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학년도 6월 A형 (고전 소설) - 53%]

- ① ㉠: 홍계월과 보국이 멀리서 온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 홍계월이 병이 나자 집안사람들이 많이 놀라며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 홍계월이 부모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서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 천자가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홍계월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 천자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계월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잖더니, 금일 이별 어이 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나?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눈 나올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나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

[A] 거라!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때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 명문(明文) 써 준 것이 있으니, ㉡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패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 가서 순사또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 판결문을 모두 덧붙여 푼뽕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억만가호마다 걸식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벌여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뚜껍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다 언문으로 ㉤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동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輦軍)의 자게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활각 뛰어 내달아서 바리뚜껍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鉦)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 에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뉘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쏘냐? 박랑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돌려메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 박랑사: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3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9월 (고전 소설/고전 시가) - 52%]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42.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우치 대노 왈,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술법이 없으며,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여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췌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급에 드문 괴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A]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험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칠 월 칠 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쳐 대령하되 길이 십 척 오촌이요, 너비 삼 척 이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중략)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답]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죽, 화답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 애걸 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화답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답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답 왈,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음에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우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화답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흠여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답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S#1. 궁궐. 낮.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왕: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춰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왕: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했습니다.

전우치: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

왕: 황송합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했습니다.

전우치: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꼴떨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며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툭쳐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중략)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전우치:** 왕은 고개를 들라.

**왕:** 예?

**전우치:** 내 분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 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화. 궁녀2 손에 들게 한다.

**전우치:** 어떤가?

**왕:**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전우치:**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왕:** ...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전우치:**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 참.

**왕:** 감히 **도사** **높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나는 궁중 악사들.

**전우치:** 도사 높이라? 예... 도사는 무엇이나? ㉢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검이 쉬-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선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친척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전우치:** 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 같으나?

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한다.

**왕:**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천냥을 주겠다.

**전우치:**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 최동훈, 「전우치」 -

42.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1학년도 6월 (고전 소설) - 57%]

<보 기>

**선생님:**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1:**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

**학생 2:**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

**학생 3:** 전우치가 임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요. .... ㉢

**학생 4:**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학생 5:** 전우치가 재산을 훔어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6월 (고전 소설) - 51%]

- ①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 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 ②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 ③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 ④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군.
- ⑤ ㉤: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유 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석 낭중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이 고향인 동청이란 자를 천거했다.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떠돌며 무뢰배와 어울려 주색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나와 대갓집에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제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석 낭중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고, 낭중도 동청의 정체를 알고는 괴로워하던 중이었다. 낭중이 마침 외직으로 부임하는 차에 동청의 허물을 감추고 유 한림에게 소개한 것이다.

유 한림은 마침 마땅한 사람을 구하던 차였다. 동청을 만나 보니 말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고 풍모도 반듯하여 흔쾌히 서사(書士)의 직분을 맡겼다. 동청은 재주가 있고 눈치가 빨라 매사를 한림의 뜻대로 챙기니 신임이 두터웠다.

이를 본 사씨가 한림에게 말했다.

“첩이 듣기로 동청은 정직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다 하옵니다. 그러니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소서.”

유 한림이 말했다.

“동청을 머물게 하는 것은 단지 글을 구함이지 벼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오. 무슨 상관이 있겠소?”

사씨가 말했다.

① “비록 벼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연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안에 두어 법도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한림이 말했다.

“부인의 말씀이 옳지만 남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소. 혹 동청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비방을 받을 수 있으니 두고 보면 자연히 알리라. 부인은 걱정 말고 집안 하인들이나 잘 다스려 법도가 어지럽지 않게 하오.”

한편 교씨는 사씨가 동청을 배척하는 것을 알고 남매와 함께 동청과 은밀히 만나면서 계책을 의논하였다.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십량은 교씨를 위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로는 한림이 교씨에게 푹 빠져 종전의 모습을 잃었다. 사씨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 수 없어 그냥 두고 보았다. 교씨는 사씨를 시기하여 한림에게 여러 번 비방을 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조바심이 들어 다시 십량을 불러 물었다.

“나의 이러한 재주와 용모로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길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사씨를 없애면 은혜를 후하게 갚으리라.”

십량이 한참 만에 말했다.

“이 일이 참으로 난처하니 다른 묘책이 없는지라. 장주 공자가 병들기를 기다려 여차여차 하옵소서. 다급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교씨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십량이 만들어 준 방

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을 사방에 두루 묻고 납매를 불러 음모의 절차를 자세히 일러 주었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니 집안에서는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장주가 감기에 걸려 때때로 토하며 놀라는 증세를 보였다. 십량이 말한 계책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장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림이 백자당에 오자 교씨가 울며 말했다.

“장주가 갑자기 병에 걸려 크게 앓으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증세를 보니 예사 병이 아니라 분명 집안 누군가가 장주를 저주하여 생긴 병인가 하나이다.”

한림이 교씨를 위로하고 나서 장주의 병세를 보니 증세가 가볍지 않았다. 매우 걱정하면서 약을 지어 먹였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한림은 걱정하고 교씨는 곁에서 줄기차게 울었다.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서사: 문서를 정리하거나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 방자: 남이 못되거나 재앙을 받도록 귀신에게 빌어 저주하는 술법.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학년도 예비 A형 (고전 소설) - 55%]

- ① 한 집안을 배경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선악 대결과 삼각 관계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시하여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32. [A]의 인물 제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예비 A형 (고전 소설) - 51%]

- ① 다양한 체험의 나열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비유적 진술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해 인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답: 5번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예비 A형 (고전 소설) - 56%]

<보 기>  
문학 작품은 시대적 이념이나 당대 사회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당대의 세태와 관습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계, 지배적 이념 등에 대한 가치관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 ① '석 낭중'이 '유 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정황으로 보아 입신 양명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② '사씨'가 '동청'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도덕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당시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군.
③ '유 한림'이 '사씨'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남녀의 역할과 위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확인할 수 있군.
④ '교씨'가 신분 불안을 느낀다며 악행을 모의하는 것으로 보아 축첩 관행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환기되는군.
⑤ '교씨'가 요망한 물건들을 음모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존재했군.

34. ㉠에서 '사씨'가 '한림'에게 하려는 말과 그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2014학년도 예비 A형 (고전 소설) - 56%]

- ①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니 그와 어울리지 마세요.
② '떡을 가까이 하면 겁이진다고 하니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니 좋은 말로 거절하세요.
④ '동냥치가 동냥치 꺼린다고 하니 그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니 '석 낭중'을 보아 그를 믿으세요.
답: 2번

[현대 소설]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랴?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삼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 씀입니다."

"무에 어찌 공연한 일이란 말이나?"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 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①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xx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물어 질가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 그 입들을 씻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험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A]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 의관(덕기의 조부)이 죽고,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훈은 세간 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북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좌(稠人廣座)\* 중에서 그럴 수도 없다.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나? 그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점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

“무어 어째? 널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꼬게 네가 무슨 총찰이나?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도 내게로 보내라.”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려셔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 줄 수 없다는 놈이 무어 어째?”

부친은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별안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덕기가 별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병적인지 벌써 망령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마루로 피해 나와 버렸다.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은 딴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 조인광좌: 여러 사람이 뻐뻐하게 많이 모인 자리.

\* 점해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A]

41.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6월 (현대 소설) - 55%]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6월 (현대 소설) - 59%]

<보 기>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몹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칙칙한 인사법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A]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할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악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 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리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불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어머니의 방일 테지만—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장**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찍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알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뽑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배 주세요.”

나는 책을 도로 돌려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 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래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도」 속의 한 구절—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션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1905년—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뺏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B]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지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꺾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똥**을 맨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꺾꺾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룻배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①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 동척: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6월 (현대 소설) - 59%]

<보 기>

「미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 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 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⑤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작반작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꼭 소요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다.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통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 아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붙잡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저 플랫폼에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 왜 저 전등이 저렇게 많이 켜지며, 왜 저 전보 기계와 전화 기계가 저렇게 불분주야하고 때각거리며, 왜 저 흉물스러운 기차와 전차가 주야로 달아나는지 ……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는가.

[A]

① 이렇게 복잡복잡하는 속에 영채는 행어나 누가 자기의 열굴을 볼까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병욱은 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 만날까 하고 플랫폼에 내려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도로 차실로 들어오려 할 적에 누가 어깨를 치며,  
 “병욱 언니 아니야요?” 한다.  
 병욱은 놀라 돌아서며 자기보다 이태를 떨어졌던 동창생을 보았다.  
 “에그, 얼마 만이여!”  
 “그런데 어디로 가오?”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  
 “왜, 어느 새에 …… 여보, 그런데 좀 만나 보고나 가는 것이 아니라 …… 그렇게 무정하오.” 하고 썩 돌아서더니, “아무려나 내립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다.  
 “아니오. 동행이 있어서 …… 그런데 누구 작별 나왔소?”  
 “응, 아니, 언니 모르셔요?”  
 “무엇을?”  
 “에그, 저런! 저 선형이 알지요. 선형이가 오늘 미국 떠난다오.”  
 “선형이가 미국?” 하고 놀란다. 그 여학생은 저편 이등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선 것을 가리키며,  
 “저기 뵈는데 …… 이번에 혼인해 가지고 양주가 미국 공부 하러 간다오. 잘들 한다. ㉠ 다 미국을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먼!”  
 병욱은 여학생을 따라 선형이가 뵈다는 차 앞에까지 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곁에 갈 수가 없다. ㉡ 선형은 하얀 양복에 맨머리로 창 밑에 서서 전승 나온 사람들의 인사를 대답하고,

그 걸 창에는 어떤 양복 입은 젊은 신사가 그 역시 연해 고개를 숙여 가며 무슨 인사를 한다. 전승인은 대개 두 패로 갈려서 한편에는 여자만 모이고, 한편에는 남자만 모여 섰다. 그 남자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의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 병욱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섰다가 중로에서 선형을 찾아볼 양으로 그 차실 바로 뒤에 달린 자기의 차실에 올라왔다. 영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아까 탔던 사람은 거의 다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거의 만원이라 하리만큼 많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 걸고, 어떤 사람은 창에 붙어서 작별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신문을 들고 앉았다.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병욱과 영체 둘뿐이다. 병욱은 자리에 앉아서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영체더러,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았니?”

“㉠어제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혼란하여집니다그러. 어서 차가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에 벌써 종 혼드는 소리가 나고, “사요나라, 고기겐요우.” 하는 소리가 소낙비같이 들리더니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어디서, “만세,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인다. 또 한 번,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창밖으로 얼른한다. 그것은 모시 두루마기에 파나마 쓴 쾌였다. ㉢병욱은 아까 선형의 곁에 있던 사람이 형식인 것과, 형식이 선형의 지아빈 줄도 짐작하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영체는 형식이란 소리를 듣고 문득 가슴이 덜렁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쪼록 형식을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방금 같은 기차에 형식이 탄 것을 생각하며 알 수 없는 눈물이 자연히 떨어진다.

- 이광수, 「무정」-

3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예비 B형 (현대 소설) - 51%]

- ① 보수적인 관점에서 동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비유법과 열거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변모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작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상적 구어체에 가까운 산문적인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구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이”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울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잡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홀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롱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나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형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년**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 끄르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훑길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 박태원, 「천변풍경」 -

(나)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위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훌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 산비탈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 보고

운전수: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그럼 내립니다. **시시한 동네**까지 물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탄식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푹푹 자고 있는 혜옥.

영호: (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메를 끌르며

민호: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

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그럼 뭐 뽀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용기?

영호: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허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 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급니**만 해도 푹푹 쭈시고 아픈 걸 견딘다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왔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푹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그건 억설이야.

영호: 억설이오?

철호: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천만에요.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그게 바루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던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O·L(over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현대 소설) - 55%]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고전 시가]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문장(文章)을 흐자 하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공맹(孔孟)을 비호려 하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 이로다

이 내 몸 쓸 더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홍진(紅塵)에 절교(絶交) 하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 하자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업시 늘거 가니

이 등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현스홀 가 두려웨라

<제3장>

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는 알기 슬회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는 알기 즐거웨라  
슬거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흐노라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홀 손 아마도 풍진(風塵) 봉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홀 손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鷓鴣)  
㉠이제야 작비급시(昨非今是)\*을 씨드러가 흐노라

<제8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홀 제와 태부(太傅) 결해귀(乞骸歸)\*홀 제

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허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하니 나도 몰나 흐노라

<제9장>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하니 므스 일 머므노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하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는 가려 정(定)하니 일흥(逸興) 계워 흐노라

<제11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 인생식자 우환시: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 도약등천 불가급: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이 미치기 어려움.
- \* 성대농포: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 작비급시: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 도팽택 기관거: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 태부 결해귀: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 부지지: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6월 (고전 시가) - 53%]

<보 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 ③ <제6장>의 중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 ④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⑤ <제9장>의 중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중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평(生平)에 원(怨)하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호(好)고져 호(好)야 십재황황(十載惶惶)\*호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호야 여공불급(如恐不及)\*호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호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온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호노라 <제4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물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호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물  
 뒤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호노노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호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십재황황: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계교: 건주어 헤아림.  
 \*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현: 세상에 나아감.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학년도 9월 (교전 시가) - 56%]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호’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뚝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회룡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필담(筆談)으로 써서 퇴(退)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퇴(退) 늙고 병든 듯한 글을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세상에 낫삽다가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襖)에 무엇 싸고 삼목櫃(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디어 들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되  
 각색 대단(大緞)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퇴(退)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A]

[B]

[C]

[D]

[E]

- 김인경, 「일동장유가」 -

- \* 지함: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 차아: 줄기에서 벌어 나간 겉가지.
- \* 수괴: 부끄럽고 창피함.
- \* 피봉: 겹봉.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9월 (고전 시가) - 56%]

<보 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 ① [A]는 [B]~[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늙고 병든 듯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퇴(退)’와 [C]의 ‘내 웃고 써서 퇴(退)’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 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은이샀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홀리떠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움도 역군은이샀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샷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움도 역군은이샀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 복년: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  
 \* 성신: 훌륭한 임금의 자손.  
 \* 낙수에 ~ 민겠습니까: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다가 폐위당한 일을 가리킴.

41. <보기>는 (나)의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수능 (고전 시가) - 55%]

<보 기>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ㄹ.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현대시]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선달에도 보름계 달 밝은 밤  
 ㉠ 앞내강 쟁쟁 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잇을 계집에 짐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물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墓碑銘)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수능 (현대시) - 55%]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 한 쪽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출게 하리  
 ㉤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예비 A형 (현대시) - 61%]

- ① '기다리리', '출게 하리' 등의 서술어로 화자의 의지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다면', '~끝에' 등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41. <보기>의 맥락에서 위 글을 해석한다고 할 때,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예비 A형 (현대시) - 53%]

<보 기>

(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맺어지지 못하는 사연으로 고민하는 연인들이 많다.  
 (나)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는 분단 시대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① '꿈'의 경우 (가)와 (나) 모두에서 현실 도피의 의도를 발견하기 쉽다.
- ② '슬픔'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민족적 한의 정서에 연결되기 쉽다.
- ③ '그리움'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역사적 전망에 연결되기 쉽다.
- ④ '겨울'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억압적 현실을 발견하기 쉽다.
- ⑤ '사랑'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개인적 욕망에 연결되기 쉽다.

42.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학년도 예비 A형 (현대시) - 53%]

- ① ㉠은 화자의 긍정적 지향점을, ㉡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 ② ㉢과 ㉣은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련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
- ③ ㉢과 ㉣은 '내'가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 ④ ㉤에서 표현된 행위가 ㉠에 나타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어.
- ⑤ ㉤에서 표현된 행위는 ㉠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어.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A]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B]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C]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D]

나는 온몸에 꽃대를 띠고  
 ㉤ 푸른 옷을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E]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애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관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털썩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애꽃」-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예비 B형 (현대시) - 50%]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 국평일 배포 자료 문학 정답률(50~59%)

by 평가원

### 정답

- 2010학년도 6월 「수궁가」 43번 ①  
2016학년도 6월 A형 「홍계월전」 39번 ⑤  
2018학년도 9월 「춘향전」 33번 ④  
2021학년도 6월 「전우치전」/「전우치」 42번 ② 45번 ④  
2014학년도 예비 A형 「사씨남정기」 31번 ③ 32번 ⑤ 33번①
- 2017학년도 6월 「삼대」 41번 ③ 42번 ⑤  
2015학년도 6월 「모래톱 이야기」 37번 ③  
2014학년도 예비 B형 「무정」 36번 ①  
2019학년도 수능 「오발탄」 26번 ⑤
- 2020학년도 6월 「유원십이곡」 33번 ④  
2019학년도 9월 「한겨십팔곡」 17번 ②  
2019학년도 9월 「일동장유가」 45번 ④  
2016학년도 수능 「강호사시가」 41번 ②
- 2018학년도 수능 「묘비명」 20번 ③  
2014학년도 예비 A형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40번 ③ 41번 ③ 42번 ④  
2014학년도 엽 B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성애꽃」 40번 ②